

## [ 성 구 ]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217번길 5  
우편번호: 16988  
발행인: 이용주  
편집인: 윤성천  
전화: 0502-604-0691  
팩 스: 0303-0944-2936

2020년 10월 20일 (화)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Kyesin) ●홈페이지: kyesin.org

제 127호 1

## 제41차 계신정기총회



제41차 대한예수교장로교회 계신총회가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송탄북부교회(총회장 이용주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달 뒤로 연기해야 했고, 총회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각 노회별 총대 4명(목사 3명, 장로 1명)으로 제한하여 총회 총대로 50명으로 확정되었다.

1부 예배에는 사회 이청수 목사(백양교회), 기도 석균태 목사(전주한빛교회), 박항우 목사(가락동부교회)가 마 5:38-44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바로 이어서 2부 회의에 들어가 총회 총대 50명 전원 참석으로 성수가 되어 제4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사전 우편투표로 선출된 임원들을 소개하고, 정·부회계는 유임(정채목 장로, 박천수

장로)하도록 하였다. 안건을 결의한 후 제42차 차기 정기총회 장소로 송탄북부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하였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총회 공천위원회는 2020년 9월 12일 15시에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제41차 총회임원 후보를 결정하여 총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총회임원을 투표하여 반송하도록 하였고, 총회 안건내용도 고지하였다.

2020년 9월 29일 오후 2시 성천교회에서 서울·경기지역 노회서기들과 총회 서기들이 개표위원이 되어 개표하였으며 그 결과 총회 신임원은 총회장 이용주 목사, 총무 채희근 목사, 서기 조영훈 목사, 부서기 곽동식 목사가 되었다.

〈제공 윤성천 목사〉



목사 안수받을 자(2020년 10월 29일(목) 오후 2시)



강도사 인허 장면

## 제41차 총회 신임원 소개



총회장 이용주 목사  
송탄북부교회



총무 채희근 목사  
도봉교회



서기 조영훈 목사  
성천교회



부서기 곽동식 목사  
서광교회



서무서기 석진오 목사  
본동교회



회계 정채목 장로  
광흥교회



부회계 박천수 장로  
상대원교회

## 신임 총회장 인사말



부족한 종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총회 제41차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총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으며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이루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교단과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단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5월과 8월 사경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계약신학연구원을 활성화하고 교역자를 양성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내외에 교회와 선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총회 발전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총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총회원과 총회산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총회장 이용주 목사 (송탄북부교회 시무)

## 제41차 정기 총회 주요 안건

제41차 계신총회 주요 의결 사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1. 미자립교회의 출석 교인 10명 이하인 경우 해당 교회와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회에서 그 교회의 존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2. 노회장 후보 자격은 담임 목사로서 45세 이상과 출석 세례 교인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교회를 사유화하는 자는 임원의 자격에서 제외가 되며, 미주 노회는 노회장 자격으로 45세 이상과 출

석 세례 교인 15명 이상으로 한다.

3. 담임 목사 청빙은 개 교회에서 청빙위원회(5-10명)에서 최종 3명 이하를 선출하여 설교하게 한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단 지교회에서 못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하를 추천 받아 설교한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4. 부교역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단 부교역자가 사임 후 2년 후에는 가능하다.

〈제공 윤성천 목사〉

## 신학교 소식

2020년 2학기 계약신학연구원의 수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학생이 아니어도 교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박세덕(명륜교회 담임목사) 계약신학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며 전국적 대유행 위험이 사그라지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코로나19 퇴치 노력에 동참하는 뜻에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신학연구원은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에 종강식이 있을 예정이다.

〈제공 김광원 목사〉

논 단



박봉일 목사  
북일교회

오는 10월에 열리게 될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려고 추진하는 것들 중에 한국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0회 정도 입법화시키려고 추진 해 왔지만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법안이지만 이 법안에 대하여 절대다수의 민주당의 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반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 1.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란

국회에 입법 예고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2020년 6월 29일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 형질,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 1) 비성경적인 법

창세기 1:27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으로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고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로마서 1:27에서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고 하심은 성경은 성행위에 있어서도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악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사단교의 주장과 일치하는 법

사단 교 창시자 앨리스 앤 베일리(Alice Ann Bailey.1880-1949)의 10가지 전략: ① 교육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생인권조례, 차별법 금지). ②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인권을 축소시켜라(학생인권조례).③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등). ④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나라, 낙태 합법화를 하라. ⑤ 평생결혼개념을 파괴하라(동성애, 이혼, 동거). ⑥ 동성애를 대체 생활방식으로 삼으라(동성애). ⑦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저질영화, 연극, 노래 등). ⑧ 미디어를 활용해 반 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라.(영

화, 연극, 노래, 공익광고). ⑨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라(WCC 등). ⑩ 각국의 정부가 이 내용을 법제화하라(CTS 동성애 대책 토크 프로그램 <동성애OUT-톡톡포유>,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

### 3) 동성애자들의 인권옹호자들이 추진하는 악법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전국 486개 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법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기본권으로서 인권 보호를 위한 10여 개의 차별금지 항목을 제시한 ‘개별차별금지법’(좋은 법)이 제정되어 있다. 장애, 나이, 학력,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국적, 인종, 가족 상황, 피부색, 임신, 출산, 질병, 직업, 성별, 종교, 신념 등의 사유로 인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18개의 개별적 차별조항을 열거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있다. 성별에 대해서는 양성차별금지법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 출신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법, 외국인처우법이 있다. 전과에 대해서는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병력에 대해서는 에이즈예방법이 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등이 있다. 이러한 좋은 차별 금지 사항은 얼마든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다(김영한 박사, 기독교 학술원장).

### 5) 동성애자들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

기독교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핵심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 장려법’ 및 반동성애 억압법이다. 영국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후에 10년 동안 그 숫자가 40배로 증가되었다고 한다(CTS: “포괄적 차별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원평 교수 주장).

### 6) 절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

인권위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평등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로서 하여금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하는 법이므로 이를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 소수에

게 특권을 주고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것은 무차별적 평등이지 자유 민주사회에서 주어지는 차등의 평등이라 할 수 없다. 평등이라 할 때 소수자를 배려하는 평등이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이승구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제 포럼서 분석).

### 7) 과중한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범한 자들에겐 법안 55조 ②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이하의 벌금을 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 지금은 범행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법안에 만들어지면 이행 강제 불이행금으로 매회 3000만원까지 벌금이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승구 박사는 “법안 49조에 따라, 차별행위로 피해 받은 사람의 소송비용도 인권위가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다. 이에 비해 차별가해자는 모든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특히 법안 51조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최대 5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입증책임은 차별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차별가해자가 ‘차별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이승구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제 포럼서 분석).

### 8) 가정과 사회의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일례로 현재의 군인 권에선 군인끼리 항문성교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의 동성연애가 합법화됨으로 성적문란을 막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집단이 된다(김영길 바른인권연구소 대표).

### 9)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고 전도하면 처벌받는 법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거리와 가정방문과 개별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전도를 듣고 종교차별금지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전도자는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도 가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10)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을 죄라고 주장할 수 없는 법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에 벗어난 동성연애나 동성혼이 죄라고 가르치면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장하면 범법자가 되어 징역과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11)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이념을 가르칠 수 없는 법

교수연대는 입장 문에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

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다. 또한 기독교 학교로선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어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게 되며, 기독교 학교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제재할 수 없고, 신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 (369명 전국신학대교수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보충설명 발표 중인 박용규 교수, 곽혜원 박사, 이승구 교수, 서창원 교수).

### 12) 해고와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악법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교수 채용과 해고 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이 교수를 지원하거나 교수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드러날 때에 동서연애를 근거로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하면 차별법의 법을 범하게 되는 악법이다. 이승구 교수는 교회에서도 적용시켜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 사역자 중에 어떤 분이 동성애자로 드러난 경우에 이 법안에 근거해서 자신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사역자의 사임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요구하면 처벌을 받도록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 이승구 교수, 기독교개혁신보).

### 13) 신학생들 모집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법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생들 모집선발 할 때에도 동성연애들을 이유로 들어서 입학할 허락지 않는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범법자가 되어 징역도 살 수 있고 과중한 벌금도 물어야 하는 악법이다.

### 14) 목회자 임직과 교회임직 때도 문제가 되는 법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거나 동성연애자들이나 동성혼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거나 강도사 인허를 하지 않는다면 차별 금지법에 저촉이 되어 감옥에 가야되고 거액의 벌금을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를 임직할 때에도 여성들이 성별차별을 내세워서 이의를 제기하면 범법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 15) 성별의 결정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악법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 우크라이나 선교



최광순 목사  
우크라이나 방주교회

## 선교지를 위한 협력자들이 있기에

“주님이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용서해야 주님이 기쁘시겠죠?  
지금 그 형제와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생활 수준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상황, 어떤 분들은 기후, 음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삶을 통해 전파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신 곳에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청년이 떠들거리는 말로 설교를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많은 분이 본질적인 설교 내용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판단되는 부분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하는 말이 알아듣기 힘들다고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설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그 아프리카 청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회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까요? 이 아프리카 청년의 상황과 처음 선교지에 온 선교사들의 상황은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처음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고민이며 힘든 부분입니다.

선교사는 언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한국에서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고 표현해야 하고, 법도 문화도 다른 현지에서 복음의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선교지 측면과 아울러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년 전 현지 신학교 수업을 하면서 만난 사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 목사는 앞

길이 촉망받는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와 부모의 방치로 7년간 마약에 빠져 이제 갈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마약 중독센터에서 전하는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된 분입니다.

무슨 중독이든 한번 깊이 빠지면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보통 사람의 7-10배의 카페인을 먹어야 손의 떨림이 줄어 들고 충동을 이길 수 있기에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고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분들의 수가 아주 적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여도 그 누구도 직장을 주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것이 현실이지요. 마약 단속을 나온 경찰들이 오히려 마약을 이들에게 강매하여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을 전도하는 삶까지 헌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사 목사는 정상인의 20%만 근력을 사용할 수 있고, 쉽게 피로가 나타나지만, 건 축일을 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거처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수업을 위해 잠시 1주일 집을 비운 사이에 이들이 술을 마시다가 자면서 화재로 자신의 집이 전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집에 다녀오더니 수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 공부하더군요. 사사 목사에게 집에 불이 났는데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사사 목사는 집이 불이 나 완전히 전소되어 손을 쓸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하러 왔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사사 목사와 1년 이상 함께 일하던 형제 한 명이 잠시 사사 목사 집을 비운 사이에 사사 목사 집에 와서 모든 물건을 훔쳐 차에 싣고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마약 중독자였지만 새로운 삶을 살기 원했기에 사사 목사가 일도 가르쳐주면서 섬기던 형제였습니다. 사사 목사는 훔쳐 간 형제에게 주변 CC카메라에 녹화가 된 것을 보여주면서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물건값의 10%를 주고 벌써 다 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사사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에게 전화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사사 목사에게 먼저 누구보다 힘들 사사 목사의 속상한 마음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사 목사에게 주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사사 목사에게 전화했더니, 사사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용서해야 주님이 기쁘시겠죠? 지금 그 형제와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역지에서 이 질문에 답을 보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변화를 가능케 하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하는 삶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와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는지 매일 느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사 목사는 이 청년을 품고 사

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사 목사는 마약 및 알콜중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센터를 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중독자센터 형제자매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 목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사 목사 자신이 마약 중독의 아픔이 있었고, 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오직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보며 사역합니다.

또한, 저는 저에게 동역자로 주신 현지 사역자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명이 없다면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 사역을 통해 사역자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기에 그리고 선교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



◀ 2쪽 하단에서 ▶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법이다(전국 486개 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 16) 정통기독교에서 이단들에 대한 정죄도 할 수 없는 법

이뿐인가?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향한 종교선전(포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전국 486개 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 17) 한국교회가 범 교단적으로 반대하는 법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산하 30개 교단 5만 4천여 교회 가입한 대표연합기관)이 연합하여 7월 24일 창립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등 절대다수가 이에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주요교단에는 교회협 주요교단인 예장 통합, 기감을 비롯해서 예장 합동, 기성, 기하성, 고신, 백석, 기침, 성결, 예장 개혁신, 예성, 합신 등이 있다. 한국

보수교회가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기 때문이다.

### 3. 결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법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에서 살펴 본대로 첫째는, 비성경적이고, 사단교적이며, 지금 현존하는 ‘개별차별 금지법’으로도 충분함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며, 동성애자들을 확산시키는 법이다. 둘째는, 이 법안은 절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이고, 과도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는 법

이며, 가정과 사회의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며, 전도하면 처벌받는 법이며, 기독교 이념을 가르칠 수 없는 법이며, 해고와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악법이다. 마지막으로, 신학생들 모집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법이며, 목회자 임직과 교회임직 때도 문제가 되는 법이며, 성별의 결정을 자기의지로 할 수 있다는 악법이며, 정통기독교에서 이단들에 대한 정죄도 할 수 없는 법이며, 한국교회가 범 교단적으로 반대하는 법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과 이병규 목사의 경건의 가르침을 지향하는 우리 계신교단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악법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 몽골선교보고



강성룡목사(앞줄 가운데)  
영주교회

##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선교사역

이 모든 일이 현재도 과정 가운데 있으나  
자격이 되지 않는 저에게  
공활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 공활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활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5:7)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멈추지 않는 진행으로 나라마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뿐 아니라 교회의 영혼구원 사역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에도 일시적인 지장이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시간도 지나가리라 확신합니다.

### 1. 선교의 시작.

먼저 몽골선교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선교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자격이 되지 않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선배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영월 마차제일교회를 시무할 때입니다. 저의 목회 사역에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마차제일교회는 저에게 큰 도전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기도처에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마5: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심령을 파고들며 그동안 저의 목회 사역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은 제가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일들을 섭리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아마도 전혀 선교에 경험이 없던 저를 훈련시키고자 인도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첫째는, 용인에명교회를 섬기셨던 연경남목사님(함동측 현재 몽골 브리야트 선교사)을 통해 실제 선교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관한 섬김의 모습을 배우게 하였고, 둘째는 달리다굴의료선교회를 통해 실제적인 선교 훈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후 마차제일교회를 사임하고(2006.6) 구리에 있는 영주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처음 저는 마차제일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총회에 간곡히 부탁했으나 결국 순종하여 구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을 심방 중에 바로 옆 가게를 운영하던 달리다굴의료 선교회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을 통해 선교회 본부가 저희 교회와 5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도 할 겸 월례

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저의 목회인생의 그림 속에 몽골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달리다굴 의료선교회를 통해 몽골 선교의 문턱을 밟도록 인도하셨습니다.

### 2. 몽골 교육선교의 태동.

몽골선교는 처음 2007년 7월에 달리다굴 의료선교회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몽골 의료선교를 인도할 팀장이 없어 당시 의료선교회 서기를 맡았던 저에게 마석 기독교병원을 운영하던 이응진원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해외선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의료진들을 이끌고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순수하고 기대에 찬 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4박5일간 의료선교를 하는 도중 저는 매일 의료 시작예배와 더불어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전도하며 기도해주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를 추억하면 저의 마음과 몸은 웬지 평안과 위로 속에 사로 잡혔으며 또한 선교지에서 일어난 치료의 역사에 놀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2009년까지 매년 7-8월이면 선교를 진행하다가 2010년 의료선교에서는 문득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들이 길어짐을 느끼게 되었고, 우두커니 무작정 기다리는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감동이 불현듯 찾아와 당시 의료 선교하던 교회의 현지 선교사(차이즈교회 전경석, 이숙희 선교사)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잠시 1시간만 가르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3시간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 다음 날과 돌아오는 날까지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지 선교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고민하다가 2010년11월에 몽골 마라나타 신학교를 개강하게 되었고 이후 3년간 의료 선교하던 차이즈 교회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신학교를 자리 잡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몇몇 목사님들이 자비량으로(나은기목사, 박진철목사, 조충현목사, 예경혜목사, 박황우목

사)선교에 동참하여 큰 힘이 되었고 몽골신학교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셨습니다.

### 3. 몽골신학교의 발전과 현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신학교는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라는 소문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돌기 시작 할 때에 마귀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현지선교사들의 시기와 더불어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속이는 역사도 일어났고, 둘째는 저들에게서 배운 현지 몽골사역자들의 거짓과 횡방으로 인해 많은 물질을 사기 당하기도 하고 여러 학생들이 상처도 받았습니다.

당시 신학생들이 54명이었는데 현지선교사의 횡방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저들의 횡방으로 신학생들이 대부분 신학교를 떠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속으로 삭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실한 몇몇 학생들을 중심으로 바양주르흐구 13구역에 건물을 빌려 신학교를 1년간 강의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2년간 통역자의 집을 빌려 이동 강의하는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내보면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선교사역 중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하나님은 우리 신학교를 더욱 단단하게 하셔서 신실한 학생들로 채워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부터 2019년까지 신학교가 더욱 단단하고 체계를 갖추어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울란바토르에 아파트를 계약하여 현재까지 울란바토르 신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해에 몽골의 제2수도인 다르항에 제2신학교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날라이허에는 제3신학교가 세워졌으며, 울란에서 남쪽으로 1100km 거리에 있는 험드에는 제4신학교가 세워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몽골 교정당국의 요청으로 몽골 중앙여성교도소에 신학교가 3년간 운영되었으나 한국의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의 횡방으로 인해 현재는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러한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2주간 매일 7시간의 강행군으로 강의하신 교단의 8명의 동역자 목사님들(정진록목사, 채희근목사, 이승주목사, 나은기목사, 이동순목사, 석진태목사)과

5명의 은퇴목사님들(고석남 목사님, 인태교 목사님, 노방규목사님, 지달웅목사님, 오창만목사님)의 수고가 계셨습니다.

그 열매로 2017년부터2019년까지 신학사13명과 목회학석사1명이 배출되었고 2020년에는 학사2명과 석사4명이 졸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의 교회 개척사역도 진행되어 8개(울란2개, 다르항3개, 날라이허1개, 험드1개, 어르헝가이1개)의 신학교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울란바토르 바양주르흐구 20동 모넬지역에 105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몽골 험드군에서 사역하던 니나 전도사를 파송해 현재 빛을 비추는 교회명으로 개척하게 했으며, 2020년 초부터는 이곳에 건물 증축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몽골 출입이 중단되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몽골 제2수도인 다르항에도 기존 신학교 사무실을 정리하고 가까운 거리에 대지 250평을 구입하여 그곳에는 대략40평을 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여파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곳은 2019년에 졸업한 바승수릉을 전도사로 파송하여 교회와 신학교를 동시에 사역하기 위해 임명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뜻 있는 목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기쁜 소식은 저희 신학교 강의 동영상들이 몽골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열매로 2019년도에는 울란바토르에서 700-1100km 거리에 있는 동, 서, 남 지역에서 3명의 몽골 지도자들이 신학생으로 등록하여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현재도 과정 가운데 있으나 부족한 저에게 공활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기쁨 속에 홀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잠시 살다가는 인생의 길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

### 교역자 이동소식

정진록 목사: 은퇴

남성호 목사: 산정교회 사임 - 안양 평강교회 부임

송기진 목사: 영화교회 사임 - 산정교회 부임